

광주 무등산 찾은 유네스코 평가단 “세계서 가장 인상깊은 주상절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인상깊다” “자연 위대함 널리 알려야”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 현장 실사가 열린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입석대에서 트란 탄 반(Tran tan van·베트남·사진 좌측 첫번째), 키미야 아자에비(Kimiya sadat AJAYEBI·이란·사진 좌측 네번째) 유네스코 지질공원 평가위원이 입석대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주상절리를 이루는 암석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집중됐다. 주상절리는 대체로 바닷가로 흘러 들어간 용암이 굳어 현무암으로 변하면서 생기지만, 무등산은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산 중턱과 꼭대기에 걸쳐 생성돼 독특하다는 것이다.

해발 1017m에 솟아난 입석대 돌기둥 무리에 다가가신 평가위원들은 또 한 번 감탄했다.

산 밑에서 바라본 규모보다 훨씬 큰 주상절리 군락이 눈앞에 펼쳐지자 평가위원들의 입이 벌어졌다. 검정 암석들이 병풍처럼 우뚝 솟아난 모습을 본 이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주상절리를 배경 삼아 휴대전화로 사진 여러 장을 찍은 평가위원들은 입석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경과 바위 표면에 새겨진 한자의 뜻을 물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서 있다는 특징에서 따온 이름의 유래를 들은 이들은 입석대를 두루 눈 여겨 봤다. 과거 제사를 지내던 제단·암자를 오가던 이들이 새긴 글이라는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역세를 헤치고 가까이 다가간 이들은 입석대 표면을 어루만지며 틈새와 균열까지 꼼꼼하게 살피었다. 이들은 “응회암 주상절리가 산 중에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며 “신기하다”고 연신 감탄했다.

2시간 가까이 현장 실사를 벌인 평가위원들은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 호평했다.

트란 탄 반 평가위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주상절리들이 인상적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다른 지질공원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지형과 수목, 경관 등 모든 것이 아름다워 마음 속 깊이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상절리 생성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의 위대함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자세히 설명한 표지판 등이 있으면 탐방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재환기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환경입니다.”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919m 장불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 실사에 참여한 트란 탄 반(Tran tan van·베트남), 키미야 사닷 아자에비(Kimiya sadat AJAYEBI) 평가위원은 장불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주상절리 기둥 앞에서 ‘인상적이다(Impressive)’를 되풀이했다. 평가위원들은 마치 계단처럼 깎아진 주상절리 단면을 쓰다듬거나 광물 구조물을 자세히 살피고 살폈다.

‘지역 최초’ 광주 복구, 등기우편 보내 위기가구 발굴

‘위기 의심’ 300가구에 매달 등기 발송
 집행원 ‘복지 사각’ 발굴하면 맞춤형 지원

광주 복구가 지역 자원과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해 나간다.

복구는 오는 21일 복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남지방우정청 및 우체국공익재단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위기 의심 가구에 복지정보 등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배달하는 집행원이 해당 가구의 위기 여부를 파악해 구청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 등기우편은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매월 300여 가구를 선정·발송하며, 사업의 효율을 위해 130여명의 집행

원을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위촉·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상담 후 동행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 공공 및 민간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드러나지 않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이중, 삼중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편의점 3사 및 동북수도사업소 등 생활밀착형 업무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IOT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 주민 포상금 지급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한전-자회사, 사상 최대 적자 늪에도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 성과급 지급”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가 최근 5년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최근 사상 최대 적자 늪에 빠지면서 성과급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조486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전으로 8625억원이었고,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 한국동서발전 1023억원,

한전원자력연료 1015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7년 4조9531억원에서 2018년 2080억원 적자, 2019년 1조27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다시 4조862억원 흑자를 내지만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의 성과급 총액도 이 기간 영업손익에 따라 증·감을 반복했다. 한전의 성과급은 흑자였던 지난 2017년 1770억원이었던 반면,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1598억원으로 약 172억원 줄었다.

취재본부

제24회
서편제
보성
소리
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2022.
9. 30. - 10. 2.
 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 판소리 성지



접수기간

2022.8.16. 화 ~ 9.23. 목 18:00 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FAX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원창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명 자료 제출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 FAX (061)853-2629

접수안내 (061)850-5892, 852-2629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jyonje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될 수 있음.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등록 19주년 기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명칭부 “대동향상”
 녹색수도보성

